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본예산 균형 확보한다

전북교육청, 유정기 권한대행 주재 내년 본예산 편성 점검 전략회의  
행사성 경비 등 30% 이상 감축… 주요 사업 안정적 추진 동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점검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 예산 상황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 등으로 보통교부금은 약 9,012억 원, '23년 5,824억 원, '24년 2,188억 원, '25년 1,000억 원)이 감액됐다. 특히 2026년도 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583억 원 감소했다.

주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계속비 등 경작성 경비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행사성 경비·연수비·소모성 경비 등 30% 이상 감액 및 자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점검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취득 최소화, 신규사업 원칙적 금지 및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규모 축소, 계속비 및 시설사업 재검토 등 전면적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본예산 편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에 2026년도 본예산을 '미래 교육 발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두 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 |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제1차 정책간담회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이남호 상임대표 등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킥오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교사·학부모·전문가들이 전북교육 발전의 뜻을 모아 교육정책을 발굴·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된다.

정책 모니터링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재원 포크리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포럼의 핵심 비전으로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이 제시됐다.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더불어 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설레는 교육'을 통해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AI시대, 아이(AI)가 미래이다' △'학력을 넘어 실력을 기르자' △'선발에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이남호 상임대표 등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킥오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별달로' △'머리를 아니라 가슴으로' △'지역이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지역을 키운다' △'나 흘로에서 함께로' △'비타가 아닌 배려로' 등 전북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담은 주요 정책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다시 설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대학과 보통교육을 잇는 든든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면서 "지역이 인재를 기르고,

/장은성 기자

## '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 간다'

### 전주대, '사자성어' 시즌 6 진행

전주대학교는 지난 20~24일 4박 5일 일정으로 '사자성어'(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 간다) 시즌6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자성어'는 자기중심성과 권리주의 강한 재학생들의 성품을 빚어주고 부모님의 존재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어, 행복한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됐다.

이 행사를 진행한 이진호 교수(선교지원실 특임교수)팀은 "이번에도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며 "지난 학기 만났던 모든 부모님이 큰 감동을 누렸고, 이 행사가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6번째를 맞은 이번 사자성어 프로젝트에는 이진호 교수, 박광수 동문(전 삼천1동장), 오황제 동문(동현교회 전도사) 그리고 선교지원실 직원들도 함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흑삼 제조업체인 (주)진앤삼 생명공학연구소(대표 강성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1명), 합천(1명), 장성(1명), 영광(1명), 용인(1명), 남양주(1명), 인천(1명)을 최종목적지로 총 330km를 이동하며 학생 7명의 부모님을 만났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부모님을 만나 사랑과 감동을 전할 뿐만 아니라 1km를 걸 때마다 100원씩의 후원(총 3만, 5,000원)을 받았다. 후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주대 재학생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학생(경찰학과 1년)의 "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사랑을 부모님께 전하는 것이 놀랍고 감사하다"며 "자녀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통해 가정의 화목과 사랑이 넘쳐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진호 교수는 "학생들에게 하늘 같은 부모의 존재와 가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7일 1층 협관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쉼표 음악회'를 열었다.

## 어울소리 장애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 전북교육청, 점심시간 쉼표 음악회… 장애인식개선 일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7일 1층 협관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쉼표 음악회'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청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어울소리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김동과 힐링의 무대를 선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사회의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가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잠시 멎춰 듣는 점심시간의 음악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편견을 내려놓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어울소리 오케스트라의 선율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통합 사회의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부설초,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 3.5:1

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민활성)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3.5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남학생은 26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해 4.1대 1, 여학생은 29명 모집에 86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이는 IB 후보학교를 운영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정과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음악단체 활동 그리고 우수한 교사진을 갖춘 국립초등학교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전주교대부설초는 11월 5일 신입생 추첨과 12월 10일 전입생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지역 양육친화문화 확산 허브

### 전북대 아동학과, 학생 그림책 제작 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 지역민 대상, 가족소통 프로그램 통해 따뜻한 양육문화 실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학과장 김리진)가 지역 양육친화문화 확산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아동학과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소통·공감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발달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전문교육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결합해 학문과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 13~14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전북 힐링 Family Camp'를 열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노보람 교수는 "그림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라며 "학생들이 창작한 그림책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따뜻한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리진 아동학과장은 "아동학과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과 가족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과"이라며 "앞으로도 실천적 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아동·가족·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AI 시대 교육환경 변화 대응·민주시민 양성

### 전북교육연수원, '교사로 바로서기'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원장 민활성)은 AI디지털 시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주시민 양성과 교육 철학 정립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교육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10~12월까지 3차에 걸쳐 운영된다. 이는 교원 생애주기 연수로 교직 경력 전반에 걸쳐 갖춰야 할 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다.

각 차수별로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AI 디지털 전환기 속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1차 연수는 28일 KBS 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의 연출자인 이이백PD를 초청, 'AI 디지털 시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인재 양성의 글로벌 흐름과 한국 교육의 미

래 방향성을 탐색한다.

이어 2차 연수(11월 6일)는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장인 이승미 박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문해력'을 주제로 학교 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3차 연수(12월 8일)는 헌법에 입각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문체부 전현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와 민주주의에서 교육의 역할을 성찰한다.

민활성 원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 미래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미련없는 협력과 협동으로 대처하는 힘을 제공하는 등 실무능력 강화에 초점을 둸다.

강양원 문예체육과장은 "공공급식 전자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공공급식플랫폼 사용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창조 나래 시청각실에서 학교급식 계약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급식플랫폼(NeAT)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급식 식재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든 급식 전문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은 학교 급식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자주 겪는 계약 실수를 예방하고, 급식 계약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전문강사가 직접 참여해 시스템 사용을 활용한 급식 계약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전달했다.

또 급식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에 미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제공하는 등 실무능력 강화에 초점을 둸다.

강양원 문예체육과장은 "공공급식 전자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